

#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에 거는 기대

조문규 본회사무국장

## 1. 서 언

일찍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일선 오리사육농가들의 최대 관심사항의 하나였다. 이는 사육습성상 오리는 질병에 강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인 측면과 91년도 오리고기 수입개방이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졌다.

특히 96년도 본회는 기존의 음식물 찌꺼기 처리방식의 하나인 기계를 이용한 건조방식에 의한 사료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농가에서 습식을 이용한 사료화를 처음으로 제창하여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 음식물찌꺼기의 습식사료화 방안은 건조방식에 비해 처리비용이 저렴한 반면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는데 따른 제반문제와 처리된 음식물 사료를 대량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사육장 확보, 사육된 축산물의 원활한 소비여건을 창출하지 못해 습식을 이용한 음식물 찌꺼기의 사료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음식물찌꺼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축산업계에서도 이를 사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부합되면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7년말 IMF시대이후 배합사료가격이 폭등하면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사료화가 급신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 실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라면 한 번씩은 사육을 시도해 봤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업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라면 이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폐킨중 오리 일명 흰오리를 대량사육하는 사육농가의 경우 음식물을 대량수거하여 이를 오리사료로 급여하기까지 수거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이를 사료화하는데 따른 비용문제, 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했다해도 출하일령지연에 따르는 품질저하에 의한 생산성 저하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사료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육기간이 긴 청둥오리 일명 토종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는 시각이 다르다. 현재 대다수의 토종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주변의 음식물을 이용하여 오리를 사육하고 있을만큼 음식물을 이용한

오리사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

토종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폐킨종오리에 비해 질병에 강하고 사육기간이 길어 일반 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는 경우 생산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토종오리 뿐만이 아니라 일반 폐킨종 오리에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크게 사육농가가 주체가 되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환경업체, 지방자치단체 청소과등이 주체가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일반사육농가가 주체가 되어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앞서 살펴본바와같이 토종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사료화를 통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형태와 배출업소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음식물을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형태등이 있다.

또 음식물 처리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는 자사제품을 이용하여 오리를 시범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와 환경처리업체나 지자체의 경우는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오리 사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이 증가되는 이유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기존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보다는 신규로 오리를 사육하려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과,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 및 기기생산업체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 및 자치단체등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이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오리한마리는 일일 약 1Kg내외의 음식물을 먹어치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오리사육은 사육이 용이하면서 타 가축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데 있다.

셋째, 생산된 산물의 품질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고 생산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축산이기 때문이다. 즉 생산된 산물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정산되기 보다는 중량과 수당으로 가격이 정산되는 유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넷째, 음식물 처리에 비용이 적게들고 오히려 처리비용을 받아 이를 이용해 오리를 사육하여 사육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최근 음식물을 이용해 오리를 사육하고자하는 일반 농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 등에서 본회에 오리사육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심지어는 음식물을 이용해 오리를 몇십만수까지 사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을 하는사람도 있었다.

#### 4.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에 거는 기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있어 사업에 성공하는 가장큰 요인은 그 농장의 생산성 즉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품질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이용하여 저렴한 오리고기를 생산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하여 저렴한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기위한 한 방법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이다. 또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이두가지 형태의 경우 일반오리사육농가에 비해 생산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아 이를 사료화하여 오리에 급여하므로써 사육기간이 길어지고 품질과 생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리를 사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리사육이 늘어나게되면 출하되는 오리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반 오리사육농가들은 현재보다 채산성이 악화돼 오리사육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오리사육농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추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일반농가에서 생산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지자체,청소업체등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업체들이 기존의 오리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오리를 사육한다면 이로인해 기존 오리사육농가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업체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생산된 산물은 새로운 오리시장을 공략한다는 측면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반사육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오

리고기 오리알 등을 공급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오리알과 오리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리고기 시장은 수입육은 가공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국산육은 냉장상태로 유통되면서 수입육은 가격이 저렴하고 국산육은 가격이 높게 유통되는 2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국내서 유통되는 육용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이 45일 전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오리알 생산을 목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토종오리 일명 청등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입추후 20일 간은 어린오리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에 육용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급여한다면 30일 내외가 음식물찌꺼기를 급여하는 기간이 된다. 따라서 음식물찌꺼기 급여기간이 짧게되고 사료화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는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어렵고 가격역시 싼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방식으로 오리를 사육한다면 이는 일반 오리시장의 오리가격을 떨어트려 일반 오리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음식물찌꺼기의 처리효율을 높이면서 상품성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육기간을 3개월정도로 잡아 사육하면 음식물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탈모문제에 따른 상품성을 제고시키면서 중량이 많이 나가 육용오리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사육된 오리는 중량이 많이 나가면서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수입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공품으로 출하를 모색한다면 일반 육용오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입오리고기와의 경쟁이 가능하여 오리고기 수입량을 줄여 외화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음식물을 이용한 오리사육으로 음식물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목적하는 리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연구 및 오리사육관리에 대한 사육기술등은 물론이고 도압기술 및 유통에 따르는 제반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에 관심이 높은 요즘 이같은 일련의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국내산 리고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기존 오리사육농가들의 사육도 활성화되고 저렴한 오리알 생산으로 국민식생활 건강에도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